

# 보 도 자 료



- ◆ 2025. 11. 26. (수) 배포
- 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최영준 글로벌협력실장 ☎ 032-770-8430
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
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

## 호주 타즈매니아주 사절단, 극지연구소 방문

타즈매니아 부총리 일행, 남극 관문 도시 장점 바탕으로 협력 방안 논의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가이 바넷(Guy Barnett) 호주 타즈매니아주 부총리가 이끄는 통상사절단이 어제(25일)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.
- 타즈매니아주(州)는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섬으로, 남극항 항공편과 쇄빙선이 출발하는 호주의 대표적 남극 관문 도시이다. 이번 사절단은 이같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타즈매니아주의 공항과 항만 등 남극 인프라 운영 체계를 소개하고, 극지연구소와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- 타즈매니아주에는 호주의 남극 인프라 운영과 협력을 총괄하는 호주남극국(AAD,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)과 '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CCAMLR)' 사무국이 있으며, 대기·기후변화·빙하 등 남극 연구를 수행하는 타즈매니아 대학 '해양·남극연구소'도 자리해 있어 남극 과학연구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.

- 이번 통상사절단은 가이 바넷 부총리를 비롯해 타즈매니아주 수석자문관, 국가성장부 사무총장, 타즈매니아대 연구자, 남극 인프라 책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.
  
- 극지연구소와 타즈매니아 주정부, 호주남극국은 호한재단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세 차례 서로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.
  
-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"호주는 2021년부터 새로운 쇄빙선을 남극에 투입하는 등 남극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, 타즈매니아주는 호주 남극 연구의 중심지로서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높다"며, "앞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남극 인프라 운영과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겠다"고 밝혔다.

**붙임 1. 호주 타즈매니아주 대표단 방문 사진**

**붙임 1**

**호주 타즈매니아주 대표단 방문 사진**

